

작품 내용

제 목	<가면의 마을>
내 용	똑같아 붕어빵처럼 다 똑같아 그 마을에 가면 사람들 얼굴 모양이 다 똑같아 내면을 숨긴 채 쓰고 있는 가면이 다 똑같아 벗어 이제 가면을 벗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면 사람들이 그럴싸할 가면 가면의 축제가 끝난 자리에서 너의 마음 속 수면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차오르는 너의 얼굴 고요한 표면위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짐짓 떠오르는 평온한 얼굴 그것이면 되었어 이제 남의 가면을 벗고 네 마음을 써봐 울긋불긋 울퉁불퉁 곱지 않아도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자신있게 드러내 너의 얼굴위로 떠오른 알싸한 표정 그게 너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라면 너의 것이면 되었어 그것이면 되었어 우리가 바라는 너의 얼굴 가면 뒤에 숨지 않은 너의 평화로운 얼굴 우리가 감싸안고 싶은 너의 얼굴은 너 자체야.